

# ‘뉴스에 미친 사람들’이 이뤄낸 방송혁명

휘트모어 지음 「세계최대뉴스왕국 CNN 그 성공비화」

미국의 이른바 ‘컨트리뮤직’ 중에 ‘몽상가는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 몽상가의 이상과 현실과의 거리는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조차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방송계에 받을 디딘 한 몽상가의 성공담은 예의 그 통념을 뒤엎기에 충분하다.

결프전을 계기로 뉴스방송국 자체가 뉴스의 초점이 될 만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CNN(Cable News Network)의 성장사를 소개한 「세계최대뉴스왕국 CNN 그 성공비화」(행크 휘트모어 / 김석희 옮김, 국제언론문화사)는 무엇보다도 입지전적 인물의 영웅화라는 흔해빠진 주제가 아니라, 설립자인 테드 테너를 비롯해서 ‘뉴스에 미친’ 주변인물들의 세세한 행적의 기록이다.

1980년 6월 1일 첫 전파를 발사하기 2년전, 테드 테너가 그를 몽상가로 불리우게 했던 24시간 뉴스 유선방송이라는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리스 손펠드(후에 CNN 초대 사장이 됨)와 나눈 짧은 통화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1989년 그가 방송언론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인 ‘폴 화이트상’ 수상기념연설을 하기까지 CNN 1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CNN 창설 이전에도 테드 테너는 선천이 남겨준 농장을 발판으로 지방 TV방송국뿐만 아니라 아틀랜타 브레이브스 야구팀과 흑스 농구팀을 소유한 ‘저명인사’였다. 그런 그가 자본금 1억달러를 갖고 거대한 뉴스네트워크를 구상할 당시 미국은 ABC, CBS, NBC 3대 TV 방송국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방송국은 지난 30여년간의 ‘독식’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국적 규모의 뉴스전용방송망의 미래는 밝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에 대한 놀라운 추진력의 소유자인 테드 테너는,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을 도와 ‘방송혁명’을 이뤄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저마다 나름의 방송경력파 방송관을 가진 초기 CNN의 주요인물들은 대부분 방송계의 아웃사이더들이었다. 3대 네트워크 영역 밖에서 방송국일을 배웠고 환경에 별로 적응하지 못하는 독불장군식의 이들은 서로 부딪히며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개국 초기의 재정적·기술적 장벽을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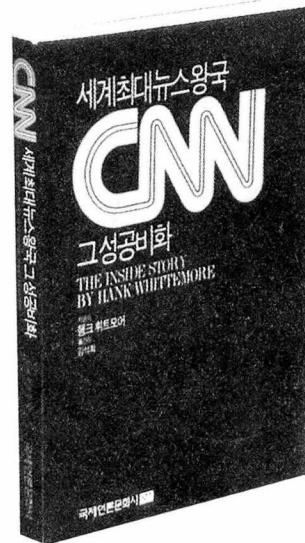
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방송, 즉 뉴스로 모아지는 이들의 열정이었다는 것이 테드 테너의 회고다.

현재 CNN은 미국 방송시장의 절반이 넘는 5천3백만 가입자를 비롯, 세계 95개국에 송신되고 있으며 9개 국내지사와 18개 해외지국을 가진 세계적인 뉴스왕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CNN의 성공은 뉴스보도에 있어 철저한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한다. CNN 보도의 주요원칙은 우선 “거르지 않은 생생한 뉴스”를 보도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 각지의 뉴스현장을 생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연발생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전개에 동참케 한다는 것이다. 미국뉴스중심에서 탈피해 뉴스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서방뉴스의 금기인물인 카스트로나 카다피를 뉴스메이커로 등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보도원칙에 기인한다. 또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수정하지 않으며, 출연자들은 방송에서 어떤 논평도 못하도록 돼 있다. 광고료보다는 시청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CNN식’ 뉴스보도에만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동안 CNN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보도 중에는 캘린저호 폭발사건과 천안문사태,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정권붕괴, 그리고 최근의 걸프전 대특종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서방기자 중 유일하게 바그다드 현지에 남아 통신망이 폐쇄된 상태에서 투숙호텔에 자체 송출위성을 설치,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해줬던 걸프전에서의 활약상은 CNN열풍이 급기야 국내에까지 불어닥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1989년 중공정상회담 취재 중 우연히 맞닥뜨린 천안문사태는 CNN에게 “역사상 가장 극적인 TV뉴스를 시작”하게 했다. 중국에서의 인공위성 송신시호 하루를 남기고 터진 천안문 시위를 취재하는 CNN 취재팀을 ABC 취재팀이 취재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중국정부에 의한 방송중단과정까지 현장보도된 것이다. CNN자체가 뉴스원이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기존 TV방송의 역기능, 즉 토크위주의 보도로 저널리즘이 점점 오락화돼가고 있다는 점과 시청자들의 뉴스채널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뉴스자체만이 스타인” 객관적 보도와 24시간 생방송을 기치로 내건 CNN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정부는 자국내 방송국의 세계적 각광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CNN의 ‘지나친’ 공정



성으로 걸프전의 경우 같이 국익이나 국가적 이미지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한편론 CNN을 ‘위기 뉴스네트워크’라 부르며 많은 양의 사실보도 자체는 오히려 극단주의라는 위기의식을 심어준다고 비판한다. 테드 테너는 이러한 비판이 시청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정보를 너무 적게 주는 잘못보다는 차라리 너무 많이 주는 잘못을 저지르겠다”고 응수한다.

CNN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테드 테너는 차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스포츠사업과 환경보호, 반핵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난폭한 선장’ 휘하의 ‘부하해적들’로 불렸던 초기 핵심간부들도 서서히 CNN을 떠나면서, CNN은 재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CNN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최근 국내의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CNN과 방송권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때맞춰 선보인 이 책은 “지난 10년간 CNN이 걸어온 얘기는 에필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라는 말로 CNN의 미래를 상징하면서, 종합유선방송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뉴스방송의 한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내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정소연 기자

## 소설로 엮은 걸프전쟁의 전말

김선유 지음 「걸프전쟁」

걸프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CNN 기자의 다급한 소리가 전세계로 퍼져나간 지 3개월이 지나 총성이 멎은 지금, 전쟁의 종말이 늘 그렇듯 민중들은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침묵할 뿐이다.

지난 1월 17일 새벽, 바그다드시에 대한 다국적군의 공격으로부터 6주간에 걸친 걸프전쟁을 이 소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투로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소설의 독특한 형식을 빌어 바라보고 있다.

전쟁의 주사위가 던져진 후 바그다드시에 대한 융단폭격, 후세인의 반격과 스커드·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무기전, 사막의 구출작전과 油田유출로 인한 페르시아만의 오염사태, 테러작전과 지상전의 총공세 그리고 TV회견을 통한 부시의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언론전쟁’ ‘컴퓨터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온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걸프전



을 저자는 표면적인 분쟁사태 이면에 깔린 아랍인의 서구에 대한 뿌리깊은 원한과 반목 등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전해준다. 사실보도와 읽는 재미의 경계를 넘나들며 힘있는 필치로 엮어나가는 한편, 걸프전의 생생한 현장사진과 방송보도, 사실자료를 입체적으로 삼입함으로써 이 책의 독자를 걸프전의 한가운데로 몰아간다.

청림출판 / B5변형 / 166면 / 4800원